

건축문화 SARAMU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1.12.145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02

기고

건축자산과 근대문화유산

03

종합

사랑에서 _ 기나긴 터널
건축계 단신

한 장의 사진 _ 백남준 비디오아트 '다다익선'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전주지역건축사회, 완산구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기탁
전라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5위 규모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광주시복싱협회에 격려금 300만 원 전달
광주건축사회, 여성건축사 신입회원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와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워크숍 개최

08-09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목포시,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관광거점으로 조성 본격화
여수시, 도시재생대학 '리스타트: 함께 재생학교' 성료



10-11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주거 부문 은상·동상 수상작

12

광고

광고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자산과 근대문화유산



신옹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wjshin@chosun.ac.kr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수리기술전문위원

문화유산은 생성시대에 관계없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오랜 기간 잘 보존된 유물과 유적들은 각 시대의 생활양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에 역사의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역사는 중층구조의 성격을 지닌다. 먼 과거의 유산이 문화재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다양한 종류의 지정문화재로 선택받아 적절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는 반면, 가까운 과거의 유산은 충분한 가치평가를 받기 이전에 송두리째 철거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기로 대표되는 가까운 과거는 도시와 복합 관계 속에서 자라난 문화유산인 까닭에 개발논리로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순리일지도 모른다.

최근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는 여러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의 분리이다. 더불어 근대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들은 지정 및 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서열화를 없애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성시대에 관계없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아직 단 한 건의 '시·도등록문화재'도 등록되지 않았다. 제도 개편의 미비로 인해 당장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0년대 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등록문화재 등록 건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활용에 대한 비중이 큰 등록문화재 일지라도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문화재 행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이나 기반시설 정비 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도 적용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보다 활용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다.

건축자산은 한옥 등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는 제외된다. 건축자산은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간환경('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 해당된다.

건축자산의 등록 요건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위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우선된다.

가치기준 중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과 용도와 외관이 한국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경관적 가치'는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적 가치'는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으로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등이다. 더 나아가서는 저명한 건축설계기술자 등과 관련되었거나 공인된 시상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도 포함된다. '사회문화적 가치'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그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하지만 건축자산은 명칭에 '자산(asset)'이 포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옥 등 건축자산법은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이다. 문화재와 유사한 가치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기준에 포함하고, 건축자산의 경제적 활용을 적극 장려한다. 문화재가 대상물을 보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면, 건축자산은 대상물의 경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것이다. 또 건축자산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예비문화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것을 심사대상으로 삼지만, 건축자산은 특별한 연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국내·외에서 상을 받은 건축 작품은 건축자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이다. 전근대시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갖는 건축물이라면 모두 건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당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며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채 적절히 보존 및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와 최근의 이슈인 '건축자산' 제도는 미래의 문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근대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정당한 가치부여를 통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키엠



**앱 하나로
비상주, 상주,
해체, 석면감리까지**
여기에 5인 사용!!
지역건축사회 공동구매시 추가할인!!

www.arkim.kr
문의 02 3462 1336
갤럭시태블릿 종정 (2년이상 구독
신규, 기존 사용자 재연장시)

사랑에서 _ 여든네 번째

건축계 단신

기나긴 터널

또 한 해가 가는가 보다. 제법 짧아진 낮에서, 낙엽이 뭉구는 거리에서, 두터워진 사람들의 외투에서, 중심가에 세워진 온도탑 등등에서 세밀이 느껴진다. 그런데 올해 연말은 유난히 하전하고 춥다. 나이 때문일까, 코로나 때문일까, 가벼운 주머니 때문일까.

항상 그러했듯이 올해도 다사다난했다. 인류가 처음 겪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지나자, 싱그러운 새싹과 함께 희망도 피어올랐던 봄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백신을 통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너나없이 만지작거렸고, 건설 경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건설자재비 급등과 인력난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그중에서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 불안과 불만 심리를 더욱더 자극했다. 낙천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난관과 불만 등이 혼재되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코 세상의 이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6월 초에 발생한 학동 붕괴사고였다. 철거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대형 사고였다. 제도적인 결함, 관리와 감독 부실, 부정부패, 불법적인 하도급, 안전수칙 미준수, 해체계획서 무시 등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었지만,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건축인으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현재는 책임 소재와 처벌 수위를 놓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발뺌과 땀질식 대책이 난무하고 너무 쉽게 잊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암울해진다. 적어도 그 상처와 교훈만은 영원히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대유행 국면도 국면이지만, 그를 빌미로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갈등도 큰 숙제인 것 같다. 규제를 강화하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계층, 규제를 풀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무리, 공동체 의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자 등이 본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려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소 위축되었지만 끊임없이 꿈틀대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행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업계를 보더라도, 타워크레인은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고, 우렁찬 망치 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으며, 연말을 맞아 공기를 맞추려는 손길도 무척 바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선거철을 맞아 관심과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듯 만감이 교차하는 한 해를 보내는 마당에 바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벌써 2년째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이 조속히 막을 내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삶의 고통과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길 희망해 본다. 제아무리 어둡고 기나긴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나듯이.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자문위원 _ 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국토부 2022년 예산, 60조 8천억 '역대 최대'

올해 대비 3조 7420억 증가... SOC 분야 22조 7,913억 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 원 증가한 60조 7,99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 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 원 대비 3조 7,420억 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 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 82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되었다.

* SOC 예산(조원) : ('18) 15.2, ('19) 15.8, ('20) 18.8, ('21) 21.6 ('22) 22.8
복지 예산(조원) : ('18) 24.5, ('19) 27.4, ('20) 31.4, ('21) 35.5 ('22) 38.0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백남준 비디오아트 '다다익선'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축문화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명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희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이상포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500,000원

신성남

20,000원

건축문화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The May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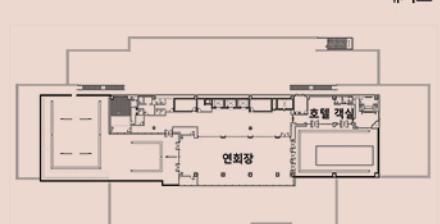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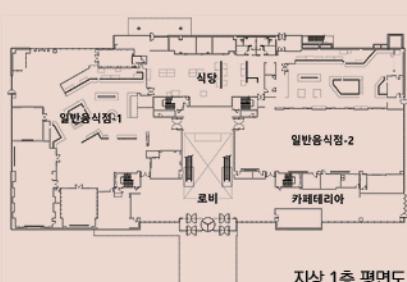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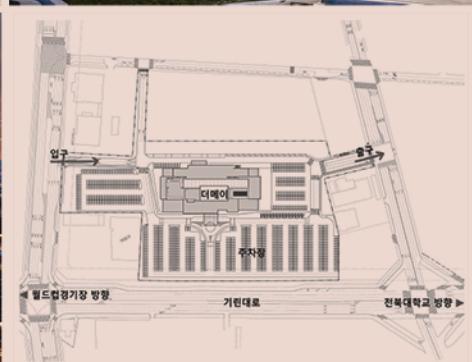
김희순 건축사 / (주)율그룹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선남로 82
Tel. 063-226-2121

전국 최초로 낙후된 공업지역의 새로운 시작으로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관광호텔이지만 공연·전시·이벤트 비즈니스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팔복예술공장과 함께 지역사회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공장지대에 위치한 만큼 전반적인 매스를 화려하지 않게 하되 최대한 중후하면서도 우아한 매스를 표현하고자 mass를 덩어리로 표현하여 오래된 고성의 성곽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3-1 / 대지면적 : 37,159m² / 건축면적 : 5,171m² / 연면적 : 11,976m² / 건폐율 : 13.91%
용적률 : 30.2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숙박시설(관광호텔)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midas CAD

매주 수요일
유용하고 흥미로운 캐드자료 및 정보를
마이다스캐드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건축칼럼

캐드팁

건축법

건축스팟

구독신청방법

- 핸드폰 카메라를 우측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구독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구독 신청페이지 클릭 후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구독완료!

전화문의 | 1899-9260 홈페이지 | www.midasCAD.com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지난 11월 18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



회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회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건축이 공존하는 생태건축을 통해 생태 문명을 선도하고 지역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들과 박진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사회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여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지난해에도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과 피해주택 무료 설계 지원 등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완산구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기탁

지난 12월 6일 완산구청에서... 관내 저소득 세대들 지원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12월 6일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세대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매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과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뜻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성열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평소에도 지역 발전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주신 전주 지역 건축사회에 감사드리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5위 규모

41개소 5,800여억 원 활력화 사업 진행... 지난 11월 24일 발전방안 토론회도



전북도는 전주 한옥마을 정비사업과 관련 국토부가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노송동, 중앙동, 진북동 일대에 구축하는 등 효과가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도시 재생사업에 차원의 본격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국토부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17년 6개소, '18년 7개소, '19년 9개소, '20년 13개소, '21년 3개소 등 올해까지 모두 41개소가 선정돼 도로·주차장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 공급, 빙집 정비, 주민 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원장을 역임한 충북대 황희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1부에서는 서울시립대 김향자 교수의 ‘구도심 지역에서 관광과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방향’, 양평 어울림센터 이민화 센터장의 ‘일본의 정책적 동향과 시사점’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우수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전주·군산·익산·남원 사업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주제 발표 이후 각 분야 전문가와 시군(지원센터) 80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사업 발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형 재생 모델을 발굴해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 2021년 제2회 계간 별빛문학상 신인상 수상

지난 12월 4일 별빛문인회와 도서출판 별빛문학 주최,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



전북 전주지역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가 2021년 제2회 계간 별빛문학상 신인상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별빛문인회와 도서출판 별빛문학이 지난 12월 4일 주최한 별빛문학상 시상식에서 시 부문에 추원호 건축사를 신인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추원호 건축사는 시뿐만 아니라 서예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미술대전, 전국온고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돼 창암 이삼만 전국서화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건축사로 활동하며 틈을 내어 자연을 상대로 과거를 회상하여 이상을 구현하는 시를 쓰는 등 문학활동을 이어나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추원호 건축사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서예 및 시문학을 즐겨 왔는데 수상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추원호 건축사는 황실문화재단 전주시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권형주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32-1, 3층
- 김병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동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 2층

• 변경(소재지)

- 장필수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마2길 16, 2층
- 이현근 건축사 / 진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02-1, 504호
- 정현수 건축사 / 엔탑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52, 3층
- 김종수 건축사 / 이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46-17, 2층

• 결혼

- 이동인 건축사 / 바오밥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11월 20일(토)
- 박진만 건축사 / (유)장원 종합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12월 25일(토)

• 부고

- 김대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 / 모친상 - 11월 17일(수)
- 서문용진 건축사 / (유)수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2월 01일(수)

New, Different, Better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 기초이엔씨(주)

www.bs-base.co.k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マイクロ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광주노인회관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골든빌 310호 / Tel. 062-384-3533



광주건축사회, 광주시복싱협회에 격려금 300만 원 전달

지난 12월 18일 광주건축사회에서... 격려금 지원 및 광주시 체육 발전 위한 논의도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지난 12월 18일 광주시 건축사회관에서 광주광역시복싱협회 발전을 위한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격려금 전달식에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을 비롯해 광주복싱협회 차승현 회장, 김권수 부회장, 고영삼

전무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채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광주시 복싱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 광주 건축사들도 많은 위로를 얻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 복싱인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차승현 회장도 “매년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히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2020년에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으로 공동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광주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1995년부터 매년 광주광역시복싱협회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여성건축사 신입회원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6일 동구 계림동 금수장 아리랑하우스에서... 여성건축사 40여 명 참석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1월 16일 동구 계림동 금수장 아리랑하우스에서 ‘여성건축사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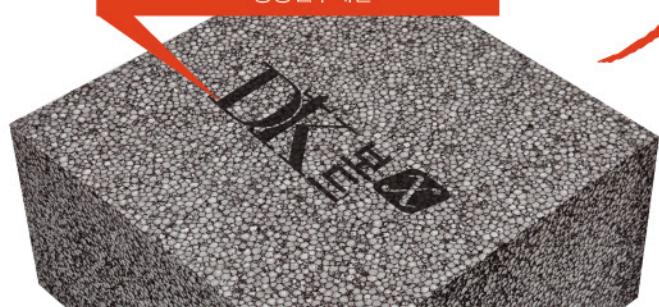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신영은)가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정인채 회장을 비롯하여 강형선 부회장, 광주시 도시재생국 이상배 국장, 도시경관과 임동범 과장, 주택정책과 정현윤 과장을 비롯하여 여성건축사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내외빈 소개 및 인사말과 함께 신입 여성회원과 선배 여성건축사 소개, 광주건축사회 및 연금관리회와 신용협동조합 소개가 진행됐다.

정인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여성건축사분들의 탄생은 큰 폭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여성회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건축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PS 준불연 단열재

DK |주|디케이보드 X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혁
신



준불연 EPS 단열재

DK 볼드 X

DK보드 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 벨 고객센터 1855-2240



광주노인회관은 1면의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부지로 어르신들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고자 하였다.

주차장 상부를 이용하여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필요 요소마다 휴게 공간을 만들었으며 장애없는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하였고 복도 중간 중간에 쉼터를 만들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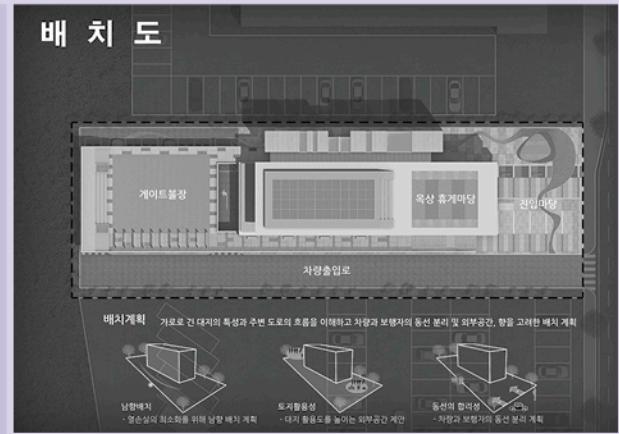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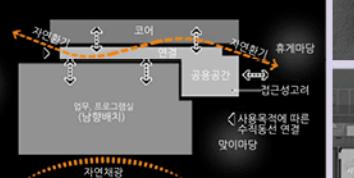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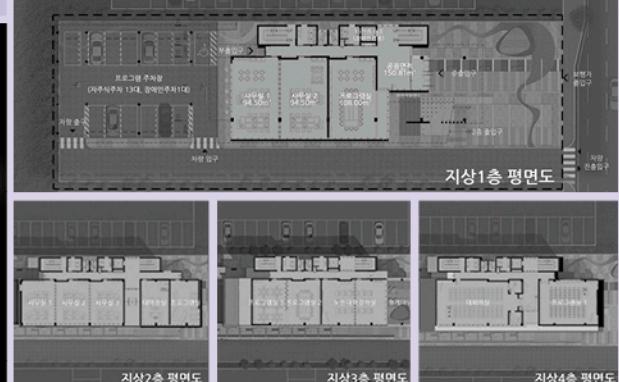


공간활용계획

자연과 공간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평면도



광주광역시와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워크숍 개최

지난 12월 3일, 광주건축사회 비롯 지역 48개 재난안전 민관단체들 활동내용 소개

광주광역시와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은 지난 12월 3일 JS웨딩컨벤션에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건축사회를 비롯 지역 48개 재난안전 민관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은 2018년 관 주도의 시민 안전문화 확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단체 주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성됐으며, 단체 간 상호 협력하며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활동 방향 및 민관 거버넌스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안전문화 혁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 안전시책 소개, 재난안전특강, 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장 표창 전달식에 이어 광주시는 ‘광주시 재난안전 혁신 추진계획’을 추진단과 공유하고, 송창영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 위원장은 ‘광주시 지역안전지수와 거버넌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재난안전 특강을 실시했다. 송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제고방안과 외국의 민간단체 협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또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 4개 추진반별로 올해 중점 추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방역수칙 준수 범시민운동, 학동 재개발 건축물 봉괴사고 지원활동 등 안전문화운동의 성과를 발표했다.

제4회 도시주택포럼 오는 12월 13일 개최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주거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도시주택포럼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에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도시주택포럼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하는 포럼으로 계획됐다.

이번 제4회 포럼은 ‘광주·전남지역 주거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유창균 교수의 ‘주거정책의 지역성과 방향성’이란 내용의 기조발제와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김석경 교수의 ‘공동주택의 사회적 공공성’이란 내용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건축사협회 前부회장 이창율 건축사와 나무심는건축인 박홍근 상임대표, 광주전남건축가회 길종원 회장, 광주광역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해당 포럼은 현장 직관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며, 온라인으로 질문을 접수받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의 사항은 포럼을 주관하는 남도일보(Tel. 062-670-1000)로 확인바란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021년 대학장학금 장학생 선정

광주지역 5개 대학 5명 학생 선발... 장학금 전달식 1월 3일 예정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회장 정인채)는 지난 11월 15일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장학생 후보자들에 대해 장학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심의하여 최종 5인을 선정했다.

정인채 회장은 “해당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은 모두 건축 관련 전공자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추천받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학증서 수여식은 오는 1월 3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되며,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학 교
1	김영성	전남대 건축학부 4학년
2	김재영	조선대 건축학과 3학년
3	이영근	광주대 건축학부 4학년
4	고유찬	호남대 건축학과 3학년
5	정 솔	송원대 건축공학과 1학년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송종혁 건축사 / 더비전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 상가2동 302호
- 정원비 건축사 / 제희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서양로 20, 굿마인드오피스텔 204호
- 최병민 건축사 / 이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충장로3가 38-9, 3층 307호
- 정현우 건축사 / RCT건축사사무소 현 / 광주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 이주현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3층

• 재입회

- 김광천 건축사 / (주)더사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A동 604A호

• 전입

- 김기일 건축사 / 다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18, 408호

• 변경(소재지)

- 김현철 건축사 / RCT건축사사무소 김 /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96, 4층 402호
- 강동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라움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B동 1106호
- 박항수 건축사 / 차오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2번길 13, 2층 201호

• 결혼

- 안민순 건축사 / 원도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11월 27일(토)

- 신중열 건축사 / 한솔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11월 27일(토)

• 부고

- 노정만 건축사 / 선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10일(수)
- 이형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플레이스place / 부친상 - 11월 25일(목)
-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2월 02일(목)
- 임정휘 건축사 / (주)세종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03일(금)

용정리 단독주택

이용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3, 1층 / Tel. 061-453-0096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 대지면적 : 2,413.00㎡ / 건축면적 : 289.68㎡ / 연면적 : 325.69㎡ / 건폐율 : 12.00%
용적률 : 13.50%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1월 19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도회 발전 방향 논의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지난 11월 19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법제위원회(위원장 변형우)와 정책홍보위원회(위원장 신승민)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합동회의에서 양 위원회 소속 위원



회'를 개최했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유산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한은행으로부터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 검토와 아이디어 수렴을 거쳐 자주개항·국제도시·예향을 테마로 한 '가칭)목포 대중 음악의 전당'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원형 복원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은 1926년 호남 인사들이 설립한 순수 민족 자본 은행으로 목포 현존하는 유일한 근대 금융계 건물이다. 목포시는 이 같은 상징성과 은행건물의 구조를 보여주는 역사·건축적 특성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전시를 연출하고, 방문객 플랫폼을 조성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거점 시설로 만들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중음악과 관련한 기획전시 공간이다. 근대에 목포는 활발한 경제활동과 국제 교류 속에서 문화예술이 발전했다. 특히 음악에서 '목포의 눈물' 이난영(1916~1965)을 비롯해 최초의 걸그룹 김시스터즈, 작곡가 손석우(1920~2019) 등이 활동하며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이 같은 목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회원의 권익과 도회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형민 회장은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여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관광거점으로 조성 본격화

11월 24일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기본 및 실시설계·제작 설치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지난 11월 24일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기본 및 실시설계·제작 설치 용역 착수보고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문의전화 1666-5123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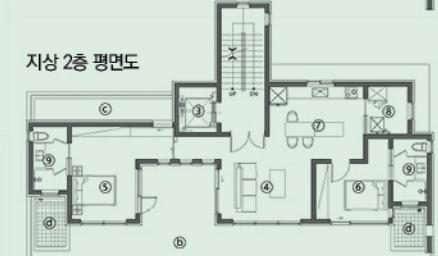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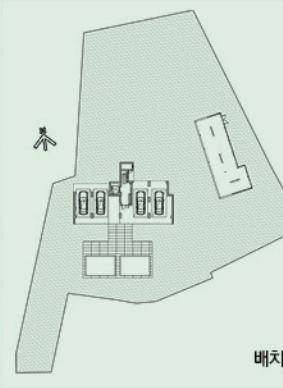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① 주차장 ② 현관 ③ EV ④ 2층거실 ⑤ 2층안방 ⑥ 2층작은방 ⑦ 2층주방
⑧ 다용도실 ⑨ 2층 욕실 ⑩ 3층거실 ⑪ 3층안방 ⑫ 3층작은방 ⑬ 3층주방
⑭ 3층욕실 ⑮ 3층화장실 ⑯ 보일러실 ⑰ 2층테라스 ⑱ 2층발코니
⑲ 2층노천탕 ⑳ 3층테라스 ⑳ 3층노천탕

본 프로젝트는 건축주 본인이 태어났던 제자리에 은퇴 후 부부가 살 집을 짓는 일이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건축주는 자녀들과 사람들을 초대하여 만날 생각에 프로젝트 초기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건축주분과 첫 미팅 때 언덕 위에 하얀집을 컨셉으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셔서 조금 밝은 톤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처음 의도는 어느 정도 반영된 듯하다. 내부 마감 또한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하여 활기찬 삶을 표현하고 싶었다. 넓은 대지 위에 남쪽으로 바다를 품은 대지는 언제 가도 참 여유로운 마음을 선사한다.

이 터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해를 품고 달을 품고 바다를 품고 자연을 품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일평생 수고하고 애쓴 건축주 내외분께서 남은 삶을 평안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나도 이곳을 지나며 행복했으면 좋겠다.

포의 대중음악 관련 역사성과 스토리를 토대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전시·체험공간을 만드는 것이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활용의 핵심이다.

여수시, 도시재생대학 '리스타트: 함께 재생학교' 성료

지난 11월 18일 진행, 24명 수료...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위한 첫걸음



전남 여수시는 지난 11월 18일 도시재생대학 수강생과 도시재생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영성 일원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영성 일원 도시재생대학'은 지속 가능한

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신규 공모 대상지 일원 주민 및 생활권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8회차 수업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 24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도시재생의 이해, 지역 역사문화 활용방안, 지역 현황파악 워크숍과 같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주민참여형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자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한 참여자는 "도시재생사업이 왜 필요한지 인식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직 사업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순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기초자치 단체로 선정됐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광역15, 기초226)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일반 부문(광역/기초)과 특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순천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전문성 등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초자치단체 일반 부문에서 전국 15개 기초자

치단체와 함께 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올해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순천시, 신규 건축직 소통·공감 열린 교육 실시

지난 11월 중순 진행...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위해

순천시는 지난 11월 15일·17일 이틀에 걸쳐 순천시 건축직 8·9급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신규 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축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업무의 어려운 점을 외부강사 없이 선배와 후배 공무원이 한자리에 앉아 토론 형태의 열린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 인허가 관련사항', '건설공사의 각종 행정절차', '순천시 문화재 현황과 관계법 해설', '불법건축물 운영 및 건축물 철거·해체 관련사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강사는 해당 업무의 각 팀장이 맡았다.

또한 신규 직원들의 업무 처리 향상과 새로운 직장에 대한 호감과 적응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현안업무뿐 아니라 직장생활의 다양한 측면까지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양은실 건축사 / 미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1, 상가동 102호

• 전입

- 이원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움건축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30, 601호

• 변경(소재지)

- 임성진 건축사 / 가람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8, 3층 302호

- 박은비 건축사 / 가로 건축사사무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2, 2층

법무법인 가현

www.welaw.co.kr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5번길 11-9

T . 062-236-0222

F . 062-236-0608

M. 010-3000-6028

E . choi092@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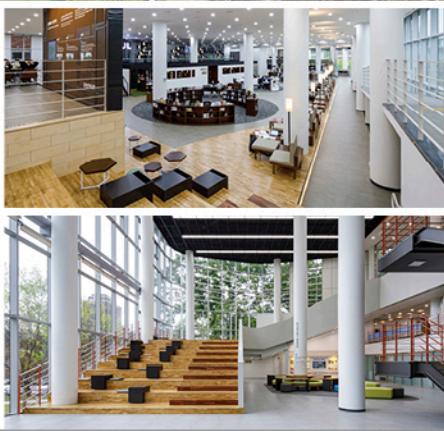
제2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동상 수상작

※ 세부 개요는 2021년 11월호에 게재됨



비주거 부문 은상 '정보마루'

설계자 : 김수현 건축사 / (주)라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정봉철 대표 / (주)봉래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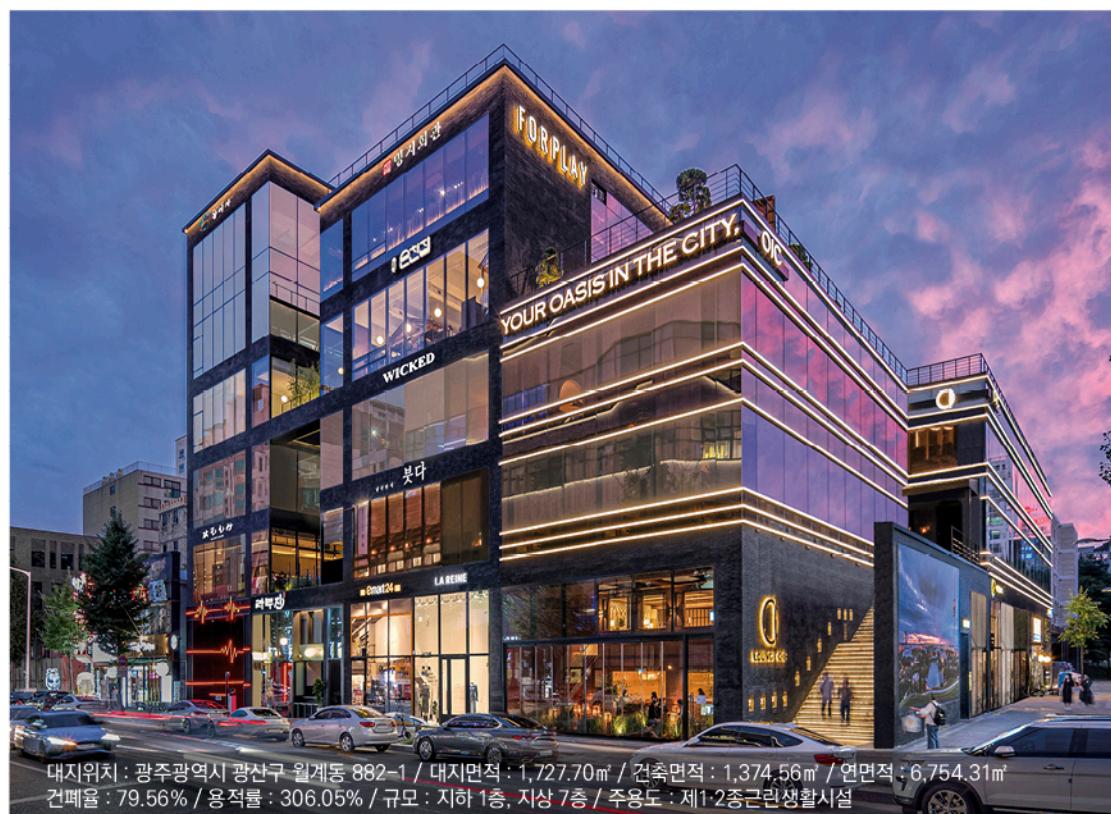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건축면적 : 989.860㎡ / 연면적 : 4,094.2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거 부문 은상 '수완동 주택'

설계자 :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이찬택 대표 / 이산건설(주)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05번길 20-14 / 대지면적 : 323.20㎡ / 건축면적 : 152.21㎡ / 연면적 : 476.93㎡
건폐율 : 47.10% / 용적률 : 94.7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주거 부문 동상 'FORPLAY'

설계자 : 박재홍 건축사 / (주)홍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강대귀 대표 / 더블유아이건설(주)



비주거 부문 동상 'Hugger Tree'

설계자 : 이순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시공자 : 은철홍 대표 / (주)진호건설



주거 부문 동상 'Gallery House'

설계자 : 강기석 건축사 / 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김성은 대표 / (주)송화건설



■ 건축사공제조합 소개 ■

● 건축사공제조합 수익률(지분상승률) 및 자산현황

- ▶ 2021년도 지분가치 상승률 : 5.79%
- 자산 약 720억 (2021.12.3.현재)

● 출자

- ▶ 1,500좌까지 상시 출자 가능
1,500좌 = 약 2억2천만원
(2021년 1좌당 금액 : 146,310원)
- ▶ 1,500좌 이상은 별도 심사 후 허용 가능

● 융자

- 융자 한도 : 출자금의 80% (출자좌수 700좌 이상은 연대보증인 필요)
- 2% 저리 / 당일 또는 익일 융자 실행 / 수수료 없음 / 부분상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손해배상공제(보험)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개정 예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 가입금액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기타용역 계약금액으로 함.
- ※ 계약금액을 축소 발급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제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 분납 가능.

● 손해배상공제 특약적용

- 공제료의 10% 추가 납입 시 건축외의 업무도 배당 가능 특약으로 **대위권 포기, 교차책임, 완공 후 하자담보, 공제료 분납** 등이 있으며 **대위권 포기 특약을 체결하시면 건축이외에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적산, 토목 등의 업무까지도 추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완공 후 하자담보 1년 무상 제공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하자담보기간이 '착공일~완공일'이나, 조합은 **완공 후 하자담보 1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공제(보험) 사고 시 배상 원칙
 -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 불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해제, 해지 조건과 유사한 손해배상

● 보증

구 分	이용한도	보증사고 발생 시 배상한도
	약정체결 한도 내	보증금액 내
이행보증 한도 (입찰·계약·하자)	소액한도거래약정 보증한도 예시	한도거래약정 보증한도 예시
	출자금의 12배수 (연대보증인 X) 700좌×146,310원×12배 = 12억 2,900만원	출자금의 40배수 (연대보증인 1인) 700좌×146,310원×40배 = 40억 9,668만원
지급보증 한도 (선급금)	출자금의 6배수 (연대보증인 X) 700좌×146,310원×12배 = 12억 2,900만원	출자금의 20배수 (연대보증인 2인) 700좌×146,310원×20배 = 20억 4,834만원

☞ 보증한도 소멸 시 추가 출자로 한도 증액 가능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해제 시 한도 회복됨.

● 조합과 금융기관의 업무 비교

구 分	신협 등 금융기관	건축사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보증	×	○ 계약보증	○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손해배상공제	×	○ 손해배상공제증권	○ 설계감리보증보험증권
이자수입	○	○	×
융자	○	○	×
수익사업과 복지혜택	×	○ 설계·감리의 전산개발, 부동산 개발	×

● 건축사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차이점

구 分	차 이
건축사공제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시 서류 한번 제출하면 추가서류 징구 없음.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는 대동소이. ▶ 설계·감리 업무 등에 대한 공제가입 후 사고 시 구상권 없음.
서울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보증보험 발급 시 재무제표, 국세 완납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설계·감리 업무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후 사고 시 구상권 청구함.

● 우대조합원 제도 안내

- 전년 또는 전전년도 기본금 1억5천만원, 매출 20억원 이상 법인
- 혜택 : 손해배상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후불 납부 가능**
한도거래약정 체결 시 **연대보증 간소화**
(우대조합원 간 연대보증 시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 연대보증인 출자좌수 요건 완화)